



# 람뽕주(州)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 “발바닥 전도회”



“ 발 바 닥 전도회”, 말 그대로 발로 뛰며 20년째 매일 전도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작은 개척회를 섬

기며 함께 모여 전도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인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가 사역하는 회들을 둘러보고 격려하기 위해 이곳 람뽕 땅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지 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먼 곳까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스기암송대회의 변화



몇 주 전에 ‘빠당찌르민’ 지역에 있는 6개 회가 한 곳에 모여서 스기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이번 암송대회는 다른 대회 때와는 달리 그동안 읽고 외웠던 바이블 타임에서 문제를 출제 했습니다. 진행방식도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고, 이어서 암송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 또한 우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제치고 새로운 분들이 우승을 차지하여 기존에 잘 하던 분들이 신선한 도전을 받고 다음 번 대회 때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감사했습니다.

##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바이블타임 소그룹모임

처음 바이블타임을 접할 때만해도 “스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과연 바이블타임을 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지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벌써 8개 회가 동참하고 있고 그중 5개 회가 바이블타임 소그룹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타임 소그룹모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학생 한 팀, 그리고 청년들 한 팀, 여자성도들 한 팀, 남자 성도들 한 팀,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누어서 소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세워 매주 바이블타임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법 간증도 하고 조금씩 소그룹모임이 모이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은 한 회를 갔는데 그 회 목사님이 달려 나와 하는 말이 평소에는 성도들이 설교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바이블타임소그룹모임을 하고 부터는 조는 사람이 없다고 신이 나서 자랑 하는 것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 년 말까지 5개 회에 바이블타임을 더 공급하고, 아직 소그룹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은 회에도 빠른 시간 안에 바이블 타임 소그룹을 만들어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려고합니다. 바이블타임 소그룹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격려 부탁드립니다.

## 몰려드는 아이들

처음부터 S마을에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할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에도 없던 방과 후 교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방과 후 교실이 이제는 마을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 주일에

세 번 영어와 수학,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멀리서 사는 아이들까지 하나 둘 늘어나 이제는 장소걱정을 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인

데, 특히 태권도의 경우는 꼬마 아이들부터 동네 아주머니 그리고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세를 몰아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은혜 가운데 사는 에스더와 은총이

에스더는 KKN(사회봉사활동)후에 KP(전공실습)할 곳 찾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자리가 나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KP(전공실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는 얼마 전에 방학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동에서 혼자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반동에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가끔 밥도 사주고 아들처럼 여겨 주셔서 은총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 놓고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늘

## 아내가 ETI(영어강사)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난생처음 아내가 가족을 떠나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영어강사 교육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번도 가족을 떠나 혼자서

멀리 나가 본 적이 없는 아내로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더구나 영어강사교육이라는 말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떠난 아내는 교육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 하더니 강사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꿈인 아내가 언젠가 그 안에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때가 곧 오리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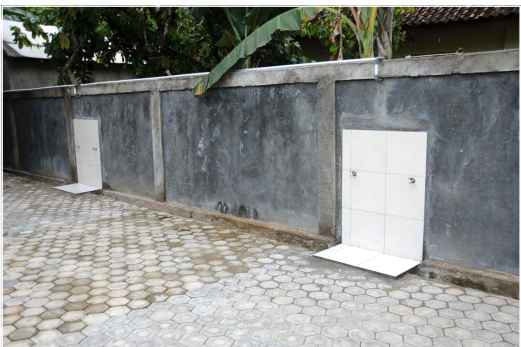
미안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감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이는 방학동안 누나와 함께 현지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사역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덕분입니다. 바라는는 에스더와 은총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아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간구제목

## 물이 없는 곳에 복음과 함께 우물을



이곳에 살면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물입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 며칠씩 물이 안 나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물이 필요한 곳에 3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1,000 가구가 넘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밖에 없어 건기 때가 되면 해마다 물 때문에 고통을 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우물을 파 주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 걱정을 덜게 되었고 기쁨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바라는는 이 우물을 마시는 주변 무슬림들이 기쁨과 더 친숙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헌금해 주신 기도와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하. 나. 님께만 집중하여 가족 모두가 삶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 미 전도종족리서치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미 전도종족 복음화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 바.이.블타임 소그룹모임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 S마을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이 기쁨과 친숙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 비자 연장이 잘 진행되도록

- ▶ 후원계좌 : 022-04-00056-552 KEB 하나은행  
(합신\*세계\*선\*교\*회-박\*명수)
- ▶ 연 락 처 : \* 선\*교\*회 사무실 : 070-7113-9500-1  
\* 인 도 네 시 아 : 070-7113-9508(삼성)  
070-4845-9508(L G)
- ▶ E-mail : [edisonp@empal.com](mailto:edisonp@empal.com)

1.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꼭 알려 주세요.
2. 간구제목을 알려주신 분들을 위해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은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매일간구하겠습니다.